

‘귀한 몸’ 된 사과·배... ‘슈파’ 이어 가격 천정부지

출하량 감소로 한개 가격 사과 4000원 60%·배 5300원 77% 상승 올해 포도 제외 과일 재배면적 감소...신고 배 도매가격 2배 오를 듯

지난해 작황부진을 겪은 ‘국민과일’ 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긴 장마 등의 여파로 사과·배 등의 출하량이 줄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이겠다고 전문가 측은 예측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사과 10개(후지) 소매가는 4만원으로, 1년 전 2만5000원보다 60%(1만5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배 10개(신고) 가격도 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77%(2만3000원) 올랐다. 이달 하순 사과와 배 한 개 값이 각각 4000원,

5300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사과(개당 2500원), 배(개당 4000원) 가격보다 각각 60%, 33% 오른 가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내놓은 ‘과일관측 4월호’는 지난해 긴 장마 등의 여파로 사과·배 등의 출하량이 줄면서 주요 과일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이겠다고 예측했다.

지난달 후지사과 도매가격은 10kg당 3만9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6700원보다 47.6% 상승했다.

이달에는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3만9000~4만3000원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4월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10kg당 2만8600원이었다.

사과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2020년산 후지 사과의 생산량과 저장량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달 후지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4.1%, 오는 5월 이후에는 2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측은 “사과는 이달 들어 경남 함양, 거창, 경북 구미 등지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다”며 “참외, 딸기 등 다양한 햇과일 출하로 인한 소비분산으로 수요증가 요인은 적으나, 전년산 작황부진에 따른 저장량 감소와 시제(時祭)를 앞두고 산지의 출하조절 등으로 오름세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배 가격은 지난해보다 거의 두 배가량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3월 신고배 도매가격은 1년 전의 3만7300원보다 76.7% 오른 15kg당 6만57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긴 장마로 저장성이 좋지 않았고 과피 얼

룩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진 탓에 이달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8.8%, 다음 달 이후에는 3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신고 도매가격은 지난해(15kg 기준 3만6000원)의 두 배 수준인 6만8000~7만2000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해 전남 생산량은 사과 2944t, 배 2만7788t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6.6%, 45.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사과 1737t·배 2만6801t)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올해는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 재배면적이 감소해 과일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주요 과일 예상 재배면적은 사과 3만1082ha, 배 8849ha, 감귤 1만9997ha로 지난해보다 각

각 1.6%, 2.7%, 0.6%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전남 재배면적은 사과의 경우 전년보다 0.9% 증가하고, 배는 3.9% 줄어들었다.

단감과 복숭아는 지난해보다 1.7%와 1.2% 감소한 8259ha와 2만197ha로 추산됐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 도시개발, 농가 고령화, 작목 전환 등이 과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포도는 사인머스켓의 인기에 힘입어 재배면적(1만3384ha)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3월 주요 과일 수입량은 10만7156t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증가했다.

이달 수입량을 품목별로 보면 바나나와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아보카도 수입량은 줄고 키위와 망고는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금요 직거래장터’ 개장 지역 우수 농산물 저렴하게 판매

올해 첫 농협 광주지역본부 ‘금요 직거래장터’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열렸다.

올해부터 직거래장터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에 내리지 않고도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100여 개 우수 농산물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졌다.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에서 생산된 미니 오이와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가 내놓은 농협 가공식품도 매대에 올랐다.

개장식에는 강형구 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광주지역 15개 농·축협 조합장,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6일 올해 첫 농협 광주지역본부 ‘금요 직거래장터’가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렸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당도 높은 봄 수박 맛보세요”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올 봄 본격적으로 출하된 당도 11브릭스 이상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식량안보 위해 식량자원 저장·비축 강화 나서야”

aT 김춘진 사장, 정세균 총리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15일 새만금 식량공급 집적시설(콤비나트·combinat)을 중심으로 한 식량자원을 제고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사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안보 콤비나트’ 건설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광활한 새만금 간척 취지를 살리고 풍력·조력 등 친환경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aT의 식량안보 콤비나트 설립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식량콤비나트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자원의 저장·가공·비축은 물론 해외 수입식량의 비축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식량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집적시설이다.

aT는 이달 중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국가 식량자원을 제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aT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45.8%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으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주요 곡

물수출국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 자원의 공공비축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aT에 따르면 주변국들은 이미 공공비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저비방관리총공사를 통해 식량 주산지에서는 3개월 이상, 주소비지에서는 6개월 이상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쌀 100만, 밀 2.3개월분, 기타 사료곡물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1개월분을 비축하고 정부가 1개월분을 추가로 비축하고 있다. 쌀 소비 전량을 수입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쌀 수입업자는 사전확약 수입물량을 신고하고 백미는 수입물량의 2배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